

개인숭배와 국가의 운명: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리더십 비교를 중심으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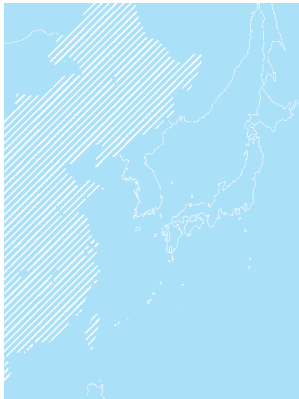
손 관 수

서울대학교

중국과 북한의 초기 사회주의 건설은 마오쩌둥과 김일성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들이 주도했다. 당시는 봉건적 잔재가 남아있던 시기로, 법치보다는 지도자 개인의 권위와 지도력에 의존하는 이른바 인치(人治)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인치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와 ‘개인숭배’를 낳았고, 이는 다시 인치를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두 나라의 초기는 마오쩌둥 시대와 김일성 시대로 불릴 만큼 이들 지도자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지대했다. 따라서 이들의 리더십을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역사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마오쩌둥은 ‘바람 앞의 촛불 같았던’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의 구원자로, 김일성은 ‘항일 민족 투쟁의 영웅’으로 각각 인식되었다. 두 지도자 모두 구세주나 영웅과 같은 초인적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리더십 분석의 의미가 크다. 특히 이들과 추종자들의 관계는 매우 감성적으로 융합되어 있었고, 추종자들의 신뢰와 헌신은 맹목적인 정도로 절대적이었다. 이처럼 전형적인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에 기반한 비교분석이 유용하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카리스마적 권위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카리스마의 물결이 정상 궤도로 돌아가면 대체로 무너지거나 제도화되고”, “전통적 권위로 전환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베이(Charlotta Levay)는 “카리스마적 리더는 자신의 이익과 정체성이 위협받을 때 변화에 저항하기 쉽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부상은 개인숭배를 초래할 수 있



마오쩌둥은 ‘바람 앞의 촛불 같았던’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의 구원자로, 김일성은 ‘항일 민족
투쟁의 영웅’으로 각각 인식되었다.
두 지도자 모두 구세주나 영웅과 같은
초인적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리더십 분석의 의미가 크다.

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통해 중국과 북한의 정치 변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마오쩌둥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던 ‘대장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카리스마적 지도자로 부상했다. 대장정 이후 3개월 만인 1935년 1월, ‘준이회의(遵义会议)’에서 당의 조직과 군사 부문을 장악한 마오는 소련의 대리인으로 여겨졌던 왕밍(王明)과의 권력 투쟁에서도 승리하며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이후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까지 이루어내면서 그에 대한 개인숭배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의 경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예전에는 없던 이견과 갈등이 시작된다. 1956년 초의 ‘반모진(反冒进)’ 사태가 그 시작이었다. 마오는 대중의 혁명적 힘으로 속도 있게 나아가야 한다며 ‘모진(冒进)’을 주창했지만, 경제사무를 총괄하던 저우언라이 총리를 비롯한 관료들은 ‘비현실적이다’라며 ‘반모진’ 입장을 나타냈다. 당시 소련까지 반모진에 동조하고, 헝가리 사태의 여파가 워낙 커서 마오는 일시 후퇴했으나 결코 그 주장을 수용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다.

후르쇼프의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 이후, 중국은 1956년 8차 당 대회에서 지도사상이었던 ‘마오쩌둥 사상’을 당헌에서 삭제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1957년 반우파 투쟁과 뒤이은 대약진운동 과정에서 ‘마오 집중’이 강조되면서 “개인숭배에도 정확한 개인숭배가 있다”는 논리가 등장하며 마오에 대한 개인숭배가 더욱 강화되었다. 1959년 대약진운동 조정 과정에서 마오와 펑더화이 간의 갈등이 발생했는데, “민주가 결핍된 것, 개인숭배가 바로 모든 폐단과 병폐의 근원이다”라는 펑더화이의 발언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마오는 이를 ‘도전’으로 인식하여 펑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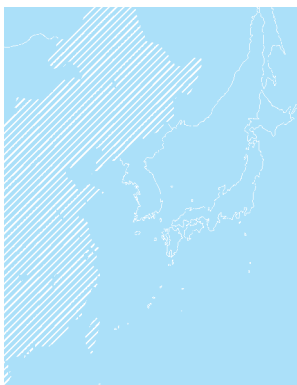
이와 그의 동조자들을 숙청했고, 이로 인해 ‘반우경 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 사건은 ‘개인숭배 표명이 충성심의 지표’가 될 정도로 정치 생태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1961년 대약진의 ‘대실패’ 이후 마오는 일시적으로 ‘집중’ 대신 ‘민주’를 강조하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유화적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마오 개인숭배’로 접근한 린바오와 연대하면서 곧 ‘집중’과 ‘계급투쟁’을 재강조하고 ‘수정주의 타파’를 내세웠다. 이후 류사오치와 덩샤오핑 등 당권파를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주자파’로 규정하며 공격했고, 이는 결국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졌다. 문혁은 자신의 권력이 흔들린다고 판단한 마오가 린바오와 장칭 등 ‘마오 개인숭배’로 무장한 추종자들과 함께 일으킨 대재난이었다.

김일성의 경우, 초기에는 마오쩌둥에 비해 카리스마가 미약했으나 소련 군정의 ‘김일성 영웅 만들기’와 이에 동조한 지지 세력의 ‘개인숭배’ 작업으로 빠르게 강화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은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일성은 전쟁 패배의 책임을 무정, 허가이, 박일우 등 경쟁자들에게 돌려 숙청했고, 해방 이후 최대의 ‘도전자’였던 박헌영과 남로당파마저 제거하며 확고한 단일지도체제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전 사회적으로 ‘수령’으로 불리며 카리스마를 더욱 강화했다.

후르쇼프의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의 파장으로 김일성 역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기도 하지만, 주체사상의 시작이랄 수 있는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 노선’을 당 사상사업의 기본으로 정하는 등 ‘개인숭배 국가’ 설계 작업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이러한 사상적 입지 작업과 ‘만주

김일성의 경우, 초기에는 마오쩌둥에
비해 카리스마가 미약했으나 소련군정의
‘김일성 영웅 만들기’와 이에 동조한
지지 세력의 ‘개인숭배’ 작업으로
빠르게 강화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은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파'를 중심으로 구축한 압도적 권력지형은 '최대의 도전'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8월 종파사건'과 중소 개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어진 1950년대 후반의 문학과 역사를 이용한 '김일성 중심 만들기' 작업은 '유일사상체계의 서막'을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1960년대 초반의 '경제적 위기'는 김일성 집권세력에 새로운 갈등을 유발했다. 박금철을 비롯한 갑산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용주의적 대안으로 '가화폐 제도' 등 리베르만 방식을 시험적으로 도입했으나 '수정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더불어 이 시기에 박금철과 몇몇 지도자들의 위상이 전에 없이 강조되는 등 '김일성 유일혁명 전통'에 이상기류가 발생한다. 결국 1967년 김일성은 '평생 동지'였던 박금철 등 갑산파를 숙청하고 '5.25 교시' 등을 통해 '유일사상체계' 구축 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이후 후계자가 되는 김정일에 의해 정립됐다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이러한 '김일성 개인숭배 국가'로 나아가는 상징이었다.

1980년 전후 시기는 중국과 북한의 국가적 행보가 크게 엇갈리는 역사적 분수령이었다. 중국에선 덩샤오핑 등 개혁파가 다시 권력을 잡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아갔는데, 이들은 문화대혁명의 처절한 교훈을 바탕으로 4개 현대화 등 당면 과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상 해방'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개인숭배 타파'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당 내 정치생활 준칙'에 '개인독단, 개인숭배 반대'를 강령으로 넣었으며, 당 현에도 '개인숭배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반 개인숭배 제도화'를 강력히 실천해 나갔다. 종신제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의 3연임을 제한하는 제도 개혁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에 반해 북한은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로의 혈통 승계를 공식화했다. 이미 북한은 1972년 헌법에서 '수령'의 지위를 '주석'으로 제도화했으며, 이후 '주체사상이 근본사상',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자'라고 강조하던 1974년에는 '개인숭배 실천 강령'이라 할 수 있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전 사회에 학습시키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이 결국 혈통 승계라는 '개인숭배의 세습'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중국과는 정반대로 '개인숭배 제도화'를 실천해 가면서 당현에도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이 당의 중심활동"이라고 선포했다. 스스로 봉건적 폐쇄국가로 걸어 들어간 셈이다.

이러한 두 나라의 엇갈린 국가적 행보의 배경은 마오쩌둥과 김일성 카

리스마 리더십의 차별성에 주목해 보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첫째, 리더십 구축 과정의 차이이다. 마오는 상대적으로 매우 ‘통합적’인 리더십 구축 과정을 거쳤다. 1921년 중국공산당 창당 멤버이기도 한 마오는 주요 지도자들과 30년, 4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을 ‘하나의 당’에서 함께 해 온 혁명 동지들이었다. 창당과 대장정, 내전, 건국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던 과정에서 마오는 군사력과 함께 인재를 소중히 했다. 이런 배경 하에 마오의 당내 반대파에 대한 타협적이고 포용적인 정책, ‘이전의 과오는 뒷날의 경계로 삼고, 병을 고쳐 사람을 구한다(懲前毖后 治病救人)’는 방침이 정립된 것이다. 베버의 논지를 빌리자면 마오는 ‘동의’와 ‘신뢰’에 기반한 ‘최소한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그 권위를 수립한 것이다.

김일성은 이런 통합적 리더십을 구축하지 못했다. 주요 지도자들이 중국공산당과 같은 하나의 틀을 마련하지 못한 채, 만주와 연안, 한반도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분산적’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해방 이후에도 해소되지 못했다. 소련군정의 지원으로 김일성이 급부상하고 한국전쟁을 통해 김일성 카리스마가 결정적으로 강화되었지만 그 과정은 매우 폭력적이었다. 결국 김일성은 마오와 달리 ‘동의’와 ‘신뢰’에 기초한 통합적 리더십을 구축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또한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타협적이고 포용적인 대응을 원칙으로 세웠던 마오와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공했다.

둘째,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카리스마 집중도’ 역시 차이가 컸다. 마오는 많은 인민들이 신당에 모실 정도로 대단한 카리스마를 지녔지만, 초기부터 매우 절제된 행보를 보이며 숭배를 방지하기도 했다. 내전 승리 직전에도 중공은 마오의 요구에 따라 “지도자의 이름을 딴 거리, 건축물 짓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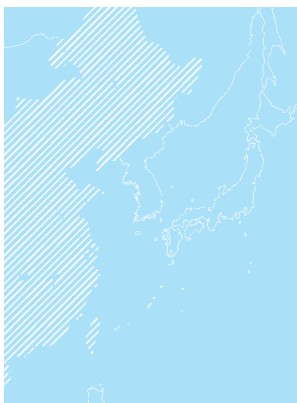
북한은 중국과는 정반대로

‘개인숭배 제도화’를 실천해 가면서

당헌에도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이

당의 중심활동”이라고 선포했다.

스스로 봉건적 폐쇄국가로 걸어 들어간 셈이다.



마라. 지도자에 대한 축수도 금지한다”는 결의를 내놓았는데, 이는 이후 당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마오는 또한 건국 이후 전국에서 빗발친 동상 건립 요구를 하나같이 허용하지 않는 신중한 행보를 계속했다. “소련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우리는 학생이다”라는 마오의 겸손은 이런 행보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마오는 대단한 카리스마를 지녔지만 무오류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않았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며 실수 가능성을 인정했고, 대약진 실패 이후에는 정책의 착오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개인숭배도 안정적 권력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매우 실용적 접근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태도 덕에 문화대혁명의 대란 와중에도 개인 숭배의 뒷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마오는 름바오가 개발한 ‘4개 위대함’ 등 개인숭배 구호를 배치하는 태세 전환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바로 름바오 몰락의 시작점이었다.

이러한 마오에 비해 김일성은 초반부터 숭배가 조장되는 분위기에서 출발했다. 소련군정의 ‘김일성 영웅 만들기’는 자연스레 김일성 숭배 조치로 이어졌다. 해방 이듬해부터 ‘김일성 장군의 노래’ 창작, ‘북조선김일성대학교’ 개교, 만경대의 혁명사적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더니 곧바로 만경대 혁명학원에는 김일성의 동상이 세워졌다. 마오에 비해 초반 카리스마가 부족했던 김일성으로서는 그의 이름자를 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김일성에게는 ‘개인숭배’가 하나의 ‘수단’을 넘어 ‘권력의 목적’, ‘본질’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이러한 김일성의 행보는 스스로를 무오류의 존재로 정립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간다. 김일성은 마오와 달리 단 한 번도 착오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다. 북한은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강조하는 것처럼 “수령의 교시는 법이자 지상 명령,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맹목적 추종이 강요되는 사회로 변해갔다. 이처럼 김일성은 ‘나만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제왕의식이 마오보다 훨씬 높았다.

셋째, 이러한 두 지도자의 차별성은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대응에서 결정적으로 엇갈리며 나타나게 된다. 1959년 마오는 평터화이의 국방부장관과 국방위 제1서기의 지위를 박탈하며 숙청하면서도 정치국원과 중앙위원의 지위는 “그대로 두어 추후 지켜본다”는 조건으로 유지시킨다. 마오는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변하면 된다. 사람에게서는 출구가 필요하고 이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고 밝히기도 했다. 덩샤오핑의 경우는 더 극적이다. 마오는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은 구별되어야 한다” 는 말을 반복하고 숙청을 하면서도 당적만은 박탈하지 않았다. 또한 덩을 직접 만나 “필요하면 나에게 편지해라” 라는 생명줄과도 같은 약속을 하기도 했다. 덩샤오핑이 장칭 등 4인방의 공세로 재낙마를 할 때에도 마오는 장칭의 직접적인 ‘당적 박탈 요구’ 만은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마오의 배려가 결국 마오 이후 개혁과 부활의 토대가 된 것이다.

이에 비해 김일성은 ‘정치적 반대파’ 에 대해 매우 비타협적이고 적대적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박헌영의 처형이다. 박헌영에 대해서는 중국과 소련까지 나서서 죽이지는 말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처형했다. ‘8월 종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김일성은 중소 개입 이후 숙청을 번복하고서도 이후 더욱 가혹하게 몰아붙여 정치적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1967년 갑산파 숙청은 ‘유일사상체계’ 구축의 장애물이면 평생동지도 제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사건였고, 이후 북한에는 김일성을 견제할 어떤 비판 세력도 남지 않게 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이 결국 혈통 승계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중국과 북한의 초기 국가 건설 과정에서 ‘개인숭배’ 는 카리스마 리더들의 정책 결정과 정치적 반대파 대응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권위적이고 독재적이었던 두 국가의 운명이 엇갈리는 데도 결정적 변수가 되었다.

주석

1. 이 글은 2024년도 박사학위 논문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개인숭배 비교 연구 -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를 발췌, 요약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힘.